

# 단체 관광 아닌 진로 연계 8개 테마로 소규모 탐구활동

## 주목받는 상일여고 어떻게 ...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체관광형 수학여행의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상일여고와 성덕고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장소를 직접 정하도록 하고, 체험활동 과정에서 수행할 개인과제와 모둠과제를 부여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상일여고는 5월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1학년 289명을 대상으로 테마별 탐구여행을 계획했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연기했다.

하지만 관광적인 단체 관광형이 아니라 소규모 테마형으로 계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상일여고는 학기 초 교과과정 및 진로를 연계하고, 숙소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8개의 테마별 코스를 정했다. ▲문학으로 치유하는 힐링여행-남도문학체험 ▲우리의 별빛바다 추억-우주과학체험 ▲하늘과 바다의 경계 그 비밀을 찾아서-남도생태체험 ▲초록마을 웰빙여행-남도의 맛과 멋 체험 ▲느림의 미학-남도 섬 체험 ▲우리들의 행복한 문화유산 답사-남도문화와 역사체험 ▲나눔과 배려-봉사체험 ▲함께하는 ECO 체험 여행-남도농촌체험 등이다.

테마별로 36명 내외로 인원을 구성하고, 관심 분야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특히 사전협의를 통해 모둠을 구성하고, 체험활동 과정에서 수행할 개인과제와 모둠과제를 제시해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일여고는 이 같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4년째 시행하고 있다.

김진구 상일여고 교장은 “관광여행처럼 변모된 기존의 수학여행을 벗어나 새로운 수학여행의 모형을 창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탐구여행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계획·확정하다보니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성덕고도 진로와 연계한 테마형 수학여행을 떠나고 있다.



슬픔에 잠긴 단원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의 장례식이 열린 21일 운구차량이 노제를 위해 단원고 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학생들 스스로 진로와 연관된 주제·장소 정해 체험활동 수행 개인과제·모둠과제 부여해 효과 광주시교육청 '일체형' 전면 폐지 추진... TF 구성

당초 6개 코스를 개발했다가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미래성장동력의 심장부를 찾아서-대전·충청권 ▲미래 블루오션 바다-부산·경남권 등 2곳으로 확정했다.

서민호 성덕고 교감은 “진로에 맞춰 학생 스

스로 주제와 장소 선택하다보니 교육적 효과는 크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헌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오후 수학여행 관

계자 회의에서 일체형 수학여행을 전면 폐지하고 테마형 체험학습으로 개선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시교육청은 테스트포스트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체형·소몰이식 수학여행은 전면 폐지하는 게 맞다”며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련활동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2분 해질 19시 10분 달돋이 00시 57분 달질 11시 48분

**진도해상 '구름많음'**

일교차 크니 건강관리 주의 필요하겠다.

광주	구름많음	10/24°C
목포	구름많음	10/20°C
여수	구름많음	13/22°C
나주	구름많음	7/23°C
완도	구름많음	12/23°C
구례	구름많음	8/24°C
강진	구름많음	9/24°C
해남	구름많음	9/23°C
장흥	구름많음	9/25°C
순천	구름많음	12/25°C
영광	구름많음	8/21°C
진도	구름많음	9/20°C
전주	구름많음	9/22°C
군산	구름많음	9/20°C
남원	구름많음	8/22°C
옥산도	구름많음	11/16°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0.5~1.0m 주의를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북~북동 0.5~1.0m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07:21 12:3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여수 02:00 08: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동 0.5~1.0m 14:25 20:26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날씨						
최저/최고	11/23	11/25	12/25	13/23	14/18	14/19

## 광주·전남 수학여행 사고 3년새 4배 급증

### 광주 30건·전남 18건... 학교 안전사고 매년 늘어

####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 밝혀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근 3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1~2013년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건수가 57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발생 건수는 2011년 129건, 2012년 231건, 2013년 216건 등이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의 발생 건수는 48건으로 2011년 6건, 2012년 19건, 2013년 23건으로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광주의 경우 30건으로 2011년 2건, 2012년 16

건, 2013년 12건이며, 전남은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11건이다.

여기에 학교가 접수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6년간 67.4% 증가했다.

교육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3년 전국 초·중·고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6만2794건에서 2009년 6만9487건, 2010년 7만7496건, 2011년 8만6468건,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088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심층 분석한 결과, 체육시간에 가장 많은 2만9868건(전체의 28.4%)이 발생했고, 점심시간(18.7%), 휴식시간·정소시간(17.8%) 등이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특히 수학여행 사고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도 교육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며 “대규모 학생들이 외부로 나갈 때 학교에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어떤 개선도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위기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급” 급매매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5평 → 3,000만원 (시세/감정가 4,500만원)
- 29평 → 5,000만원 (시세/감정가 6,500만원)
- 53평 → 1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2억)

문의. 010-3605-5000

##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1:1 개인지도
- ▶ 임장/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